

청동기시대 타제석기 제작 체계 시론*

이 기 성**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청동기시대 타제석기에 대한 기존의 논의
- III. 신석기시대의 마제석기와 타제석기
- IV. 청동기시대의 타제석기와 마제석기
- V. 타제석기와 마제석기의 제작 체계
- VI. 맺음말

국문초록 | 흔히 구석기시대는 타제석기, 신석기시대에는 타제석기와 마제석기, 청동기시대에는 마제석기가 제작·사용되었다고 이해되지만 최근의 연구와 발굴 성과 등은 구석기시대부터 마제석기가 출현하고 청동기시대에도 타제석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듯 석기제작의 타제기법과 마제기법은 선사시대를 관통하여 존재했지만 모든 시대에서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신석기시대의 경우 타제석기와 마제석기가 병용되었다고는 하지만 마제석기는 목재 가공용의 석부, 석촉 등 일부 기종에 한정되어 나타나며, 그 역시 석재의 입수 여부 그리고 주거지 축조를 위한 목재의 수요 증가 등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출현한다. 그리고 기존의 타제석기와는 다른 석재를 사용하면서 석재 획득부터 서로 다른 제작 체계 속에서 마제석기가 제작된다. 그러나 청동기시대가 되면 타제석기는 타제석부와 타제인기 등 극히 한정된 기종만 제작·사용되며, 석재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5193)

**李基星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huare@hanmail.net
투고일: 2024. 5. 14. 심사완료일: 2024. 6. 14. 게재확정일: 2024. 6. 24.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6..319>

역시 일반적인 마제석기의 석재를 그대로 사용한다. 즉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마제석기 제작 체계 속에서 타제석기가 제작·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별개의 또는 하나의 제작 체계에서 마제석기와 타제석기가 제작되는 것에는 특정 석재의 입수 여부, 특정 기종 석기의 사용 빈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을 것이며, 시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지역 또는 유적에 따라서도 상이했을 것이다.

핵심어 | 고고학, 타제석기, 마제석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I. 들어가며

흔히 구석기시대는 타제석기, 신석기시대는 타제석기와 마제석기, 청동기시대는 마제석기가 제작·사용되었다고 이해되지만 최근의 연구와 발굴 성과 등은 구석기시대부터 마제석기가 출현하고 청동기시대에도 타제석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듯 석기제작의 타제기법과 마제기법은 선사시대를 관통하여 존재했었다. 그리고 석기제작에 있어 타제기법과 마제기법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타제석기와 마제석기를 특정시대의 표지적 특징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¹⁾ 그렇지만 타제석기와 마제석기가 모든 시대에서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제석기와 타제석기가 서로 다른 제작 체계에서 제작·사용되었는지 또는 하나의 석기 제작 흐름 속에서 타제석기와 마제석기가 함께 제작·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그리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타제석기와 마제석기를 비교하여 제작 체계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모두 동일 기종에서 타제와 마제가 확인되는 석부를 대상으로 형태적 특징, 석재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1) 성춘택, 『석기 고고학』,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25쪽.

Ⅱ. 청동기시대 타제석기에 대한 기존의 논의

청동기시대는 일반적으로 ‘농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무문토기와 마제석기가 널리 사용되며 사회 복잡도가 증가한 시기’²⁾로 이해되고 있다. 타제석기와 마제석기가 병용되는 신석기시대와 달리 마제석기만이 사용되는 것이 청동기시대의 문화적 특징 중의 하나라는 것은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청동기시대에 사용되는 모든 석기가 마제로 제작된 것은 아니다. 석기 조성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절대적 수량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청동기시대에도 타제석부, 타제인기 등과 같은 타제석기가 제작·사용되었다.

타제석부는 신석기시대부터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석기로 주거지 조성 또는 농경지 개간 등에 사용되는 굴지구의 기능을 했다고 이해되고 있다.³⁾ 청동기시대의 타제석부는 전기에만 확인되며 중기에 들어와 수전도작 농경의 정착과 더불어 목재 굴지구로 대체되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화전 농경과 연관되어 해석되기도 한다.⁴⁾ 이렇듯 청동기시대 전기의 생업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물적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타제석부는 청동기시대 석기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다. 땅을 파는 용도의 타제석부,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용도의 마제석부, 전혀 다른 두 용도의 도구임에도 ‘석부’라는 명칭 때문에 합인석부, 편인석부 등의 목재가공용 석기와 하나의 범주 안에서 매우 소략하게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⁵⁾ 타제석부가 청동기시대 석기 연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청동기시대 전기에만 한정되어 출토되고 출토량이 매우 적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호서지

2)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 강의』, 사회평론아카데미, 2012, 83쪽.

3) 안재호, 「한국 농경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43, 2010; 윤지연, 「사용흔 분석을 통한 석부의 기능 연구」, 『한국고고학보』 63, 2007 등

4) 안재호, 앞의 논문, 51쪽.

5) 성춘택, 앞의 책, 2017, 328쪽; 손준호, 「청동기시대 석기 분류」, 『역사학연구』 74, 2019, 15쪽.

역 전체에서도 10점 내외로 출토될 뿐이며, 서울경기지역에서도 2000년 이후 조사된 유적에서는 단 2점⁶⁾에 불과할 정도이다. 그렇기에 소수의 연구⁷⁾를 제외하고 청동기시대의 타제석부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외 청동기시대 타제석기로 타제인기를 들 수 있다. 타제인기는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석기 기종 중, 당시 생활에 필수적이었던 동물 해체, 가죽 벗기기, 고기 자르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는 석기의 기종이 확인되지 않기에, 이러한 용도로 박편석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⁸⁾ ‘타제인기’는 박편 중 조정흔의 유무와 상관없이 타격 후에 인부가 만들어져 있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길이와 폭 5~10cm, 두께 1cm 내외로, 인부를 제외하고는 조정흔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설정하였다.⁹⁾ 그러나 박편석기라는 특성상, 형태적 정형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사용흔을 판별 기준으로 설정하여 조동리 유적 출토 유물을 대상으로 사용흔 분석을 통해 타제인기를 구분한 사례¹⁰⁾ 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청동기시대 타제인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는 매우 적다. 박편석기를 칼과 같은 용도로 일회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하나의 기종으로 설정하기에는 형태적 정형성의 결여, 일반 박편과의 구분 등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박편석기를 하나의 특정 기종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신석기시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서야 신석기시대의 박편석기를 펜돌칼이라는 하나의 특정 기종으로 설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¹¹⁾

6) 성춘택, 앞의 책, 2017: 331쪽.

7) 윤지연, 앞의 논문, 2007; 김지원,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보습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8) 이기성, 「무문토기시대 타제석기 시론」, 『호남고고학보』 49, 2015.

9) 이기성, 위의 논문, 2015, 89쪽.

10) 김수영, 「청동기시대 타제인기의 속성과 기능 연구 -조동리유적 출토 타제인기를 중심으로-」, 『중앙문화재연구』 제26호, 2018.

11) 김영준, 「신석기시대 펜돌칼과 생업활동 -암사동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신

석기 제작에 있어 구석기시대는 타제석기, 신석기시대에 마제석기의 등장과 타제석기와의 병용, 청동기시대는 마제석기라는 단순 구분을 반대하며, 마제석기의 제작은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시작되며, 타제석기의 제작 기법이 청동기시대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은 최근에 와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¹²⁾ 그러나 마제석기와 타제석기의 제작이 당시 석기 제작 체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각각 위치하였는지를 구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석기시대 유적을 대상으로 타제석기와 마제석기의 제작 체계가 어떻게 공존했는지를 구분한 연구가 소수 있기는 하지만,¹³⁾ 대부분은 마제석기와 타제석기를 ‘석기’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아마도 마제석기 제작 과정에 타제라는 제작 기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타제와 마제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석재’이며, 석기 기종에 따라 석재가 선택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타제석기와 마제석기는 의도적으로 구분되어 제작·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석기 제작에 있어 타제와 마제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요인인 석재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 신석기시대에 새로 출현하는 마제석기를 타제석기와 비교 검토하고, 청동기시대 타제석부와 타제 박편석기를 검토하여 석재 사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석기연구』 43, 2002

12) 성춘택, 앞의 책, 2017, 25쪽; 장용준, 「구석기시대의 문화」, 『한국고고학 이해』, 진인진, 2023, 32쪽. 이러한 지적 외에 청동기시대 석기에서 확인되는 타격 기법에 관해서는 박성탄, 「청동기시대 석기의 타격흔 관찰 및 기능 검토에 대한 접근」, 『야외고고학』 21, 2014. 등의 연구가 있다.

13) 윤정국, 「한국 신석기시대 석기제작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등

Ⅲ. 신석기시대의 마제석기와 타제석기

신석기시대에는 타제석기와 마제석기가 병용된다고 이해되고 있지만, 모든 기종에서 타제와 마제가 동시에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신석기시대의 마제석기는 사용 과정에서 마연되는 지식과 갈돌, 갈판 등을 제외하면 석촉과 석부류가 일반적이며, 그 외 어로구 중 낚시바늘의 축부와 옥기 정도에 국한된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동일 기종 중 타제석기와 마제석기가 함께 출토되는 경우도 매우 한정적이다. 그렇기에 신석기시대 석기 기종 분류에서 타제, 마제는 그리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듯하다. 신석기시대의 석기 기종 분류는 흔히 개별 기종의 기능을 추정하여 용도별로 구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표 1).¹⁴⁾

표 1. 신석기시대 석기 분류(하인수 2006, 142 표 7 전재)

		석기 종류
생산용 구	수렵구	석촉(마제, 타제), 석창(마제, 타제), 찰두기
	어로구	어망추, 석추, 결합식조침(축부), 결합식작살, 작살(마제, 타제)
	채집·농경구	타제석부(따비, 팽이, 곰배팽이 등 굴지구), 석검, 유선형석기, 유건석기, 원반형석기

14) 이준정, 「패총 유적의 기능에 대한 고찰-생계 주거 체계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한국고고학보』 46, 2002; 최종혁, 「한반도 남부지방 농경에 대한 연구 - 석기 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 12, 2005; 하인수, 「영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 -편년과 생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박준범, 「신석기시대 서울 경기지역 출토 간석기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5, 2008; 박근태, 「제주도 신석기시대 석기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1, 2011; 근태 2011; 소상영,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시대 생계-주거 체계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등.

가공구	식료가공	갈돌, 마석, 갈판, 고석, 흙돌, 대석, 석기, 박편석기(굽개, 밀개, 짜르개 등), 석인, 석도, 석거, 역기(礪器)
	목재가공	마제석부(소형, 대형), 인부마연석부(소형, 대형), 석착, 편평편인석부
	석제가공	지석(소형, 대형), 찰절석기, 고석, 석추
	기타	발화석
비실용구	장신구	이석, 수석, 석천(石鉤)
	의례구	봉상석기(석봉)

표 1과 같이 기능과 용도에 따라 석기의 기종을 분류한 후, 그 내부에서 마제와 타제석기를 구분하지만, 다용도구로서의 타제석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별 기종 석기의 기능과 용도를 명확하게 특징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¹⁵⁾

주목할 것은 윤정국의 석기 분류로, 석기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석기(제작석기), 도구로 만들어진 석기(도구석기), 그리고 유적내로 운반된 석재(모암)으로 대별하고, 그 중 도구석기를 가공유무에 따라 가공석기와 무가공석기로 구분한 후, 결면에 남아있는 최종 제작기술에 따라 타제, 마제, 고타석기로 나누어 기종을 구분하였다. 이 분류에 의하면 타제석기는 타제석촉·침도기·어망추·작살·석시·굴지구류·인기·석도형석기·타제석검·원반형석기·굽개·밀개·성형석기·찍개 등의 기종이 있으며, 마제석기에는 마제석촉·마제석창·결합식조침촉부·석추·석도·석검·석부·석착 등의 기종이, 고타석기에는 갈돌·갈판·흙돌·고석 등의 기종이, 무가공석기에는 대석, 발화석, 고석과 흙돌 등이 포함된다.¹⁶⁾ 이 분류 방식은 각 기종의 석기가 어떠한 흐름을 거쳐 제작되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마제와 타제 양 기법으로

15) 이기성, 「신석기시대의 기후 변동과 석기 조성의 변화」, 『한국문화연구』 38, 2020, 16쪽.

16) 윤정국, 앞의 논문, 2015, 70~71쪽.

제작되는 석촉이나 석창 등을 제작 기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⁷⁾

표 2. 호서지역 신석기시대유적 출토 마제석기

번호	유적	출토유구	기종	제원(길이×폭× 두께cm)	석재	시기
1	계룡 용동리 유적	1호주거지	석촉	2.7×0.9-1.50.2	천매암	중기
2		1호주거지	석촉	(잔)3.6×2.5× 0.3	점판암	중기
3		1호주거지	석촉	(잔)4.6×1.5~ 2.6×0.4-0.8	점판암	중기
4		1호주거지	석촉	(잔)3.2×1.1× 0.2	점판암	중기
5		1호주거지	미완 성석 기	4.5×4.3×0.5	불명	중기
6	청양 학암리 유적	신석시대주거지	석도 편	(잔)5.5×4.8× 0.42	녹니암	후기
7		신석시대주거지	석촉	(잔)3.3×2.2× 0.3	사암	후기
8	홍성 장척리 유적	1호 수혈유구	마제 석부	(잔)5.7×(잔)5. 1×2.5	사암	불명

17) 이기성, 앞의 논문, 2020, 23쪽.

9	아산 장재리 안강골 유적	4호주거지	마제 석부	(잔)7.1×6.65× 2.65	녹색편 암	중기
10		4호주거지	석부	11.4×6.6×3.5	녹색편 암	중기
11		6호주거지	석착	5.1×3.8×0.85	편암	중기
12	아산 용두리 부리기 유적	나구역 신석기시대주거 지 1호	석부	11.7×2.8-6.1× 1.8-2.9	불명	후기 전반
13	서산 대죽리 유적	패각층	석부	(잔)6.4×3.4× 3.5	화강암	중기-후 기
14	청원 쌍청리 유적	3호주거지	석부	(잔)3.9×6.8× 1.7	사암	중기
15		3호주거지	석부	6.9×3.4×1.4	사암	중기
16		4호주거지	석부	6.4×4.2×2.5	안산암	중기
17		4호 주거지	석부	10.1×5.7×3.2	안산암	중기
18	옥천 대천리 유적	주거지	석부	6.5×5.5×1.2	화강암 절편마 암	중기
19	증평 석곡리 유적	주거지	석촉	(잔)4.1×1.5×0. 2	편암	중기
20		주거지	석촉	(잔)3.0×1.7×0. 3	세일	중기
21		주거지	편인 석부	(잔)9.8×4.7× 1.7	사암	중기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마제석기가 출현¹⁸⁾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18) 장용준, 앞의 논문, 2023, 32쪽.

아직 구석기시대의 마제석기에 대해서는 마제석기 제작을 위한 지식 등의 공반 출토가 있는지 또는 마제석기를 의도한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¹⁹⁾ 일반적으로는 신석기시대 초기에 마연기법과 함께 판상 소재의 사용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보고 있다.²⁰⁾ 그렇다면 다음에 서는 호서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을 검토하여, 어느 단계부터 마제석기가 등장 하였으며, 동일 기종에서 타제와 마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 박준범, 앞의 논문, 2008, 40쪽.

20) 윤정국, 「한국 신석기시대 초기의 석기 제작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33, 2017, 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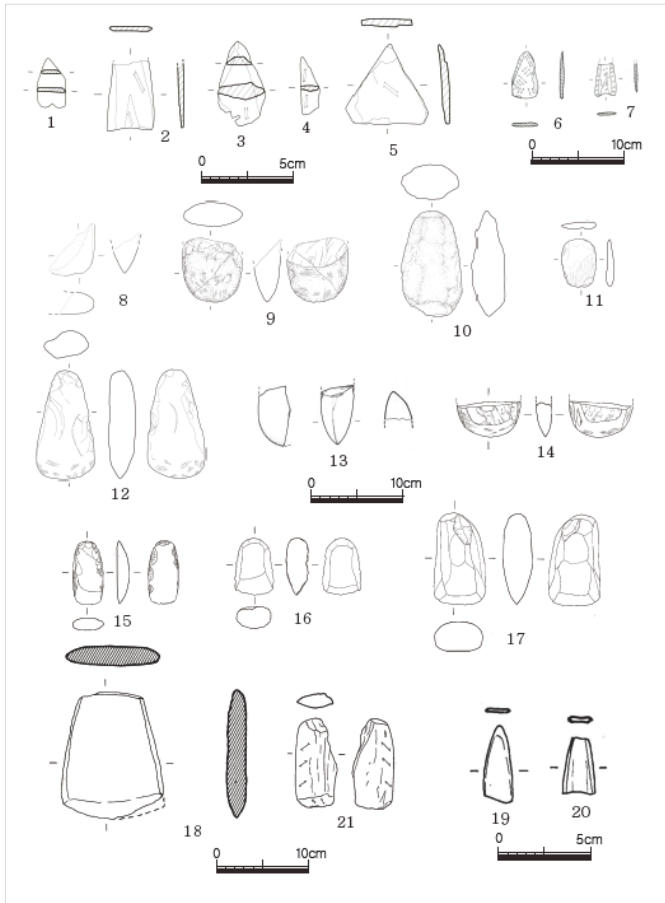


그림 1. 호서지역 신석기시대유적 출토 마제석기
 (1~5:계룡 용동리유적, 6·7:청양 학암리유적, 8:홍성 장척리유적,
 9~11: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 12:아산 용두리 부리기유적, 13:서산
 대죽리유적, 14~17:청원 쌍청리유적, 18:옥천 대천리유적,
 19~21:증평 석곡리유적)

호서지역에서는 지금까지 40여개 소에 달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굴

조사되었는데,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지 또는 수혈 1, 2기에 불과한 소규모이며 출토 유물 역시 많지 않다. 이렇듯 충청 지역에서는 조·전기의 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중기에 유적이 등장하며 말기가 되면 감소하며,²¹⁾ 대체로 규모도 작고 석기도 10점 내외만이 출토되는 양상이라는 점은²²⁾ 기존에도 지적되었다.

호서지역 신석기시대 마제석기는 총 9개 유적에서 총 21점에 불과하다(표 2, 그림 1). 석촉은 7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무경식 석촉으로 석재는 천매암, 점판암, 세일, 편암 등이다(그림 1-1~4·19·20). 마제석부는 12점으로 대형의 합인석부와 석창 등이 함께 확인되는데, 합인석부는 길이 10cm 내외, 폭 6~7cm, 두께 3cm 내외의 크기이며, 석창 등은 길이 5~6cm, 폭 3~4cm, 두께 2cm 내외로 사용 석재는 사암, 편암, 화강암, 안산암 등이다(그림 1-8~18·21). 석제만을 두고 본다면 청동기시대 마제석촉, 마제석부에 사용되는 석재와 큰 차이는 없다. 또한 마제석부의 경우,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은 편암, 청원 쌍청리유적은 사암과 안산암 등 유적별로 사용 석재가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 유적에서는 동일한 석재가 사용되고 있다.

타제석기와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 기종에 타제석기와 마제석기가 모두 있어야 하겠지만, 석촉의 경우, 호서지역에서는 마제 기법으로 제작된 것만 확인된다. 흔히 마제석기는 신석기시대 초기에 등장하여 전기에 집중적으로 확산된다고 이해되지만,²³⁾ 이는 지역과 기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석촉의 경우, 출현 단계부터 마제석촉 또는 타제석촉이 사용되는 지역이 구분되는데, 동북지역은 타제 석촉, 서북지역은 마제석촉, 중서부 해안지역은 마제 석촉, 남해안지역은 타제석촉이 중심을 이룬다.²⁴⁾

21) 윤정국, 「남부내륙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의 변천과 양상」, 『한국신석기연구』 22, 2011, 69쪽.

22) 소상영, 앞의 논문, 2013, 107쪽.

23) 소상영, 「신석기시대의 문화」, 『한국고고학의 이해』, 2023, 39쪽.

24) 구자진, 「신석기시대의 수렵구」, 『신석기시대 석기론』, 2016, 216쪽.

호서지역을 포함한 중서부지역에 타제석촉이 없고 마제석촉만이 확인되는 것은 신석기시대에 압록강 유역과 그 이남 지역에 강한 영향을 끼친 요동반도지역의 신석기유적에서 타제석촉보다 마제석촉을 사용했고, 요동반도지역에는 흑요석 산지가 없어 그와 관련된 석기가 없다는 점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며,²⁵⁾ 이렇듯 신석기시대 석촉 제작·사용에 있어 마제와 타제를 구분짓는 가장 큰 요인은 적합한 석재의 획득 여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중서부지역뿐 아니라 동해안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동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는 타제석촉과 마제석촉이 모두 확인되는데, 일부를 제외하면 타제와 마제에서 공통되는 석재는 없으며 마제석촉은 세일, 이암, 점판암 등을, 타제는 흑요석 등을 사용한다.²⁶⁾ 결국 석촉의 제작에 있어, 타제 또는 마제 기법의 선택 기준은 석재였던 것이다.

석부류는 석촉과 달리 호서지역에서 타제석부와 마제석부가 함께 출토되어 양자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 3, 그림 2). 다음에서는 타제석부와 마제석부가 함께 출토된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과 청원 쌍청리유적의 사례를 살펴본다.

25) 김은영·장용준, 「한반도 신석기시대 흑요석제 석기의 출토양상과 의미」, 『한국고고학보』 2022 권 2, 2022, 236쪽.

26) 최종휴,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석촉의 형식 분포와 변천」, 『한국신석기연구』 39, 2020, 61쪽.

표 3.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청원 쌍청리유적 출토 타제석부 및 박편석기

번호	유적	기종	출토유구	제원(길이×폭× 두께 cm)	석재	비고
1	아산 장재리 안강골 유적	타제석부	2호주거지	12.5×6.7×1.2~ 2.05	세립질 화강암	굴지구 실패품 혹은 박편
2		타제석부	2호주거지	(잔)13.1×8.85× 2.2	섬록반암	굴지구 실패품 혹은 박편
3		타제석부	5호주거지	10.5×7.8×1.1	섬록암	
4		타제석부	5호주거지	13.2×7.3×1.3	세립질 화강암	
5		타제석부	5호주거지	7.35×6×0.9	응회암	
6		타제석부	5호주거지	(잔)7.7×9.2×1.4	응회질 사암	파손품
7		타제석부	5호주거지	15.75×7.95×1.75	세립질 화강암	
8		타제석부	5호주거지	12.3×7.1×0.8	세립질 화강암	굴지구 실패품 혹은 박편
9		타제석부	5호주거지	12.3×9.3×2.1	세립질 화강암	
10		타제석부	5호주거지	15.15×8.4×0.75~ 1.6	반정질 화강암	
11		타제석부	6호주거지	13.7×8.95×0.4~ 2.8	세립질 화강암	
12		타제석부	6호주거지	13.95×8.9×2	반상 화강암	
13		타제석부	6호주거지	(잔)8.5×8.2×1	백운모화 강암	굴지구 파손품

14		박편	2호주거지	9.5×6.5×0.3-0.6	반상 화강암	
15		박편	2호주거지	3.2×1.7×0.65	세립질 화강암	
16	쌍청리 유적	타제석부	3호 주거지	14.8×8.3×2.3	세립질 화강반암	
17		박편	3호주거지	11.8×5.2×0.9	점판암	
18		석도 미성품	4호 주거지	14.6×5.6×1.6	천매암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에서는 마제석부 3점(그림 1-9~11)과 타제석부 13점(그림 2-1~13)이 출토되었다. 마제석부는 길이 10cm 내외, 폭 6cm 내외, 두께 3cm 내외인 반면에 타제석부는 길이 13cm 내외, 폭 8cm 내외, 두께는 2cm 내외로 크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타제석부는 형태적으로는 대부분 호인을 가진 평면형태 장타원형인데,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석재이다. 마제석부는 모두 녹색편암이지만, 타제석부는 화강암, 사암, 섬록암 등으로 타제석부와 마제석부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석재는 없다.

이러한 양상은 쌍청리유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쌍청리유적에서는 총 4점의 마제석부(그림 1-14~17)와 1점의 타제석부(그림 2-16)가 출토되었는데, 역시 크기와 사용 석재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과 동일하게 마제석부는 길이 10cm 미만, 폭 4cm 내외, 두께 3cm 내외에 사암과 안산암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타제석부는 길이 14.8cm, 폭 8.3cm, 두께 2.3cm로 길이와 폭은 더 크며 두께는 더 얇고 석재는 화강반암이다. 평면형태 역시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 출토품과 동일하게 호인의 평면형태 장타원형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유적에서 석부는 마제와 타제 기법이 사용된 석재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편석기²⁷⁾의 사용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의 경우, 박편석기의 석재는 화강암 등으로, 마제석부의 석재와 동일하지만 쌍청리유적 출토 박편석기는 천매암과 점판암 등 석부와는 다른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1~15)·청원 쌍청리유적(16~18) 출토 타제석부 및 박편석기

27) 본고에서는 기능보다는 석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타제인기’ 대신 박편석기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제석부와 타제석부가 같이 출토되는 유적의 경우, 타제석부와 마제석부의 석재는 전혀 다르다. 신석기시대 석기 기종 중 석촉, 석창, 굴지구 등은 층리면이 장 발달된 점판암과 세일, 혼펠스 등의 퇴적암계 석재²⁸⁾, 갈돌과 갈판은 화강편마암, 편마암 등 편마암계 석재, 석부는 섬록암, 규암 등 경도가 높은 단단한 석재가 이용되었다는 점²⁹⁾은 잘 알려져 있다.

즉 신석기시대 들어와 마제석부와 마제석촉으로 대표되는 마제석기가 등장하지만 이것은 기존에 타제로 제작되었던 기종을 동일한 석재를 사용해 마제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유에서 다른 석재를 사용해 마제 기법을 채용하게 되는 것이다. 석촉의 경우, 특정 석재의 입수 가능 여부에 따라 마제 또는 타제석촉이 일반적으로 제작·사용되게 되며, 기본적으로 유적 주변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석재를 사용하는 석부의 경우, 판상으로 가공이 쉬운 석재와 경도가 높은 석재를 구분하여 타제석부와 마제석부를 제작하였다. 즉 타제 기법과 마제 기법은 의도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마제석기가 중심인 청동기시대 석기 구성에서 타제석기는 어떻게 제작·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Ⅳ. 청동기시대의 타제석기와 마제석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타제석부, 타제인기 등 청동기시대에도 타제석기가 제작·사용되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마제석기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정밀 마연 직전 단계까지 타제로 전체적인 형태를 조정한다는 점에서도 타제

28) 윤정국, 「신석기시대 굴지구의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7, 2009, 44쪽.

29) 윤정국, 앞의 논문, 2011:77쪽.

기술이 청동기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³⁰⁾

그렇다면 청동기시대의 타제석기가 신석기시대의 타제석기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석재를 사용하며 서로 다른 제작 체계 속에서 제작, 사용되었는지, 동일 유적에서 마제석부와 타제석부가 출토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박편석기의 석재 사용 양상을 확인한다.

호서지역에서 타제석부는 매우 드물게 출토된다. 6개 유적에서 20여 점에 불과하며, 그 중 마제석부와 타제석부가 함께 출토되는 유적은 보령 명천동 유적과 예산 석곡리유적을 들 수 있다(표 4. 그림 3).

표 4. 보령 명천동유적·예산 석곡리유적 출토 마제석부류와 타제석부

번호	유적	유구	기종	제원(길이×폭×두께)	석재
1	보령 명천동 유적	1호 주거지	석부	21.7×9.2×5.8	사암
2		3호 주거지	편인석부	7.3×3.2×1.1-1.5	사암
3		5호 주거지	편인석부	6.4×3.2×0.3-0.8	유문암
4		6호 주거지	석착	4.2×2.7×1.0	유문암
5		15호 주거지	석착	3.7×1.2×0.8-1.3	유문암
6		19호 주거지	편인석부	7.7×2.9×1.0-1.5	사암
7		27호 주거지	편인석부	5.5×3.4×0.6-1.5	시암
8		33호 주거지	합인석부	13.0×4.9×3.0-4.0	세일
9		35호 주거지	편인석부	6.0×3.3×0.8-1.0	유문암
10		36호 주거지	유구석부	20.8×7.2×2.2-4.6	사암

30) 황창환, 「제4장 석기의 제작」,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서경문화사, 2014, 93쪽.

11		39호 주거지	편인석부	5.2×1.7×1.2~1.5	유문암
12		41호 주거지	편인석부	6.8×2.0×0.7~1.3	유문암
13		43호 주거지	석부	14.2×5.8×1.7~2.7	사암
14		46호 주거지	편인석부	5.5×2.7×1.2~1.4	유문암
15		59호 주거지	석부편	9.4×7.0×3.0~3.8	유문암
16		62호 주거지	합인석부	17.4×8.6×1.5~6.0	유문암
17		33호 주거지	미완성석기(타제석부 가능성)	12.6×6.4×2.5~2.7	세일
18		35호 주거지	타제석부	17.8×9.9×1.5~3.0	사암
19		36호 주거지	타제석부	14.7×8.4×0.9~2.2	사암
20	예산 석곡리 유적	6호 주거지	합인석부	10.2×4.5×2.7	편암
21		6호 주거지	합인석부	13.9×5.4×3.9	편암
22		6호 주거지	합인석부	14.5×6.4×5.4	편암
23		3호 주거지	타제석부	12.9×7.3×0.8~1.1	편암
24		3호 주거지	타제석부	12.9×6.1×0.9~1.1	편암
25		3호 주거지	타제석부	12.8×7.1×0.9~1.1	편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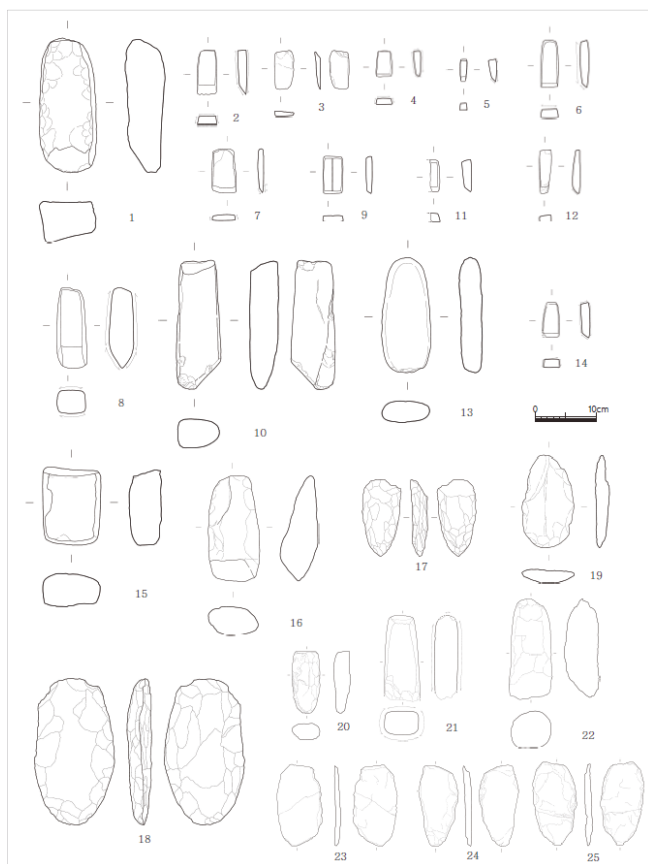


그림 3 . 보령 명천동유적(1~19)·예산 석곡리유적(20~25) 출토
마제석부류와 타제석부

보령 명천동유적의 경우, 석착 등의 소형 석부를 포함해 총 16점의 석부와 3점의 타제석부가 확인된다. 마제석부는 길이 20cm 내외의 대형석부(그림 3-1·10)와 길이 13cm 내외의 함인석부(그림 3-8·13·15·16), 그리고 길이 10cm 이내의 편인석부류(그림 3-2·7·9·11·12·14)로 구분된다. 석착 사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형의 석부는 사암, 편인석부류는

유문암과 세일이 주로 사용되었다. 타제석부는 미완성품을 포함하여 총 3점이 출토되었다(그림 3-17~19). 35호 주거지 출토 타제석부(그림 3-18)의 경우, 가장자리를 타격하여 형태를 만들었으며, 사진상 자연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길이 17.8cm×폭 9.9cm×두께 1.5~3.0cm에 평면형태는 호인을 가진 장타원형이다. 36호 주거지 출토품(그림 3-19)은 길이 14.7cm×폭 8.4cm× 두께 0.9~2.2cm에 평면형태는 35호 출토품과 동일하게 호인을 가진 장타원형이다. 두 점 모두 석재는 사암으로, 마제석부와 동일한 석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크기 역시 합인석부와 유사하다. 33호 주거지 타제석부(그림 3-17)의 경우, 보고서에는 미완성석기로 보고되어 있는데, 다른 두 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형이며 석재 역시 세일로 소형 편인석부의 미완성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인부가 뾰족하게 가공되어 있다는 점에서 굴지 구로 보는 편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령 명천동유적의 경우, 마제석부류의 출토량에 비해 타제석부는 매우 적은 수만 출토되고 있어, 당시 타제석부의 사용이 활발하지는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마제석부와 동일한 석재를 사용하고 크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때, 타제석부만을 별도의 석재나 제작 체계에서 제작·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형 마제석부의 제작과정 중에서 필요에 따라 타제석부를 제작·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보령 명천동유적과 달리 예산 석곡리유적에서는 마제석부 3점(그림 3-20~22), 타제석부 3점(그림 3-23~25), 총 6점이 출토되었다. 3점의 타제석부는 모두 3호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크기는 각각 길이 12.9cm×폭 7.3cm×두께 0.8~1.1cm, 길이 12.9cm×폭 6.1cm×두께 0.9~1.1cm, 길이 12.8cm×폭 7.1cm× 두께 0.9~1.1cm로 거의 동일하다. 석재는 모두 편암이며, 장타원형의 평면형태 역시 동일하다. 인부부분이 약간 뾰족하게 가공되어 있는 것은 보령 명천동유적 출토품과 차이가 있다. 마제석부 3점 모두 6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며, 크기는 길이 10.2~14.5cm로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인 크기는 타제석부와 유사하다. 예산 석곡리유적의 경우, 마제석부

와 타제석부가 크기도 유사하며 동일한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보령 명천동유적과 마찬가지로 타제석부 제작을 위한 별도의 석재 확보 등의 체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제석부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타제석부도 함께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석기시대의 타제석부는 마제석부와는 다른 석재를 사용하고 크기도 마제석부에 비해 대형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만, 청동기시대 타제석부는 마제석부와 동일한 석재를 사용하고 크기도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신석기시대의 양상과는 다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신석기시대 사회에서 빈번한 사용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제석부의 제작과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사용빈도가 극감하면서 한정적으로만 사용되었던 타제석부의 제작 체계가 서로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석기시대에는 타제석부를 위해 별도의 석재 획득과 제작 체계가 있었다면 청동기시대에는 마제석부의 제작과정 속에서 타제석부가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편석기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총 10개 유적에서 24점의 박편석기가 확인되었다. 박편석기는 양쪽 부분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 석촉 등의 반제품으로 추정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인부로 사용가능한 면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박편석기의 출토 수량은 유적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유물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1, 2점에 불과한 유적도 있다. 표 5에서 제시한 수치가 절대적인 출토량은 아닐 것이며 유적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출토 타제 박편석기

번호	유적	유구	보고서 석기명	제원 (길이×폭×두께cm)	석재	시기
1	당진 수청 무수동굴유적	2지역 1지점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미완성 석기	17.6×2.69×0.7~2.51	천매암	전기
2	당진 기지시리유적	5호주거지	박편	4.5×2.76×0.1~0.6	세일	전기
3	당진 기지시리유적	7호주거지	박편	5.65×2.7×0.55	세일	전기
4	당진 기지시리유적	7호주거지	반제품	6.5×3.8×0.3~0.6	세일	전기
5	당진 기지시리유적	12호주거지	박편	6.6×6.15×0.75	세일	전기
6	태안 시목리 437-24번지유 적	31호 수혈주거지	미완성 석기편	7.9×2.7×1.1	이암	중기
7	태안 시목리 437-24번지유 적	31호 수혈주거지	미완성 석기편	3.6×3.4×0.3	이암	중기
8	홍성 목현리유적	4호주거지	미상석 기편	5.4×1.65×1.6	점판암	중기
9	홍성 목현리유적	6호 주거지	미상석 기편	6.8×5.2×0.8	세일	중기
10	보령 명천동유적	8호주거지	미완성 석기	4.2×5.2×0.7	편암	중기
11	보령 명천동유적	청동기시대 122호 수혈	미완성 석기	13.2×3.2×0.4~0.9	사암	중기
12	예산 석곡리유적	6호 주거지	미상석 재	6.2×2.8×0.4	점판암	전기
13	예산 석곡리유적	6호 주거지	미상석 재	5.2×2.5×0.4	점판암	전기
14	예산 석곡리유적	6호 주거지	미상석 재	11.6×7.1×1.4	점판암	전기

15	천안 성성동유적2	1호 주거지	미상석 기	9.6×3.4×0.65	세일	중기
16	연기 대평리D유적	KC-001	석기 미제품	5.3×4.6×1.5	유문암	전기
17	연기 대평리D유적	KC-001	석기 미제품	9.7×4.9×1.3	유문암	전기
18	연기 대평리D유적	KC-001	불명석 기	5.8×7.0×2.3	유문암	전기
19	연기 대평리D유적	KC-006	불명석 기	5.4×5.6×1.7	이암	전기
20	연기 대평리D유적	KC-006	불명석 기	9.1×4.2×0.9	이암	전기
21	연기 대평리D유적	KC-007	석재	13.8×3.7×1.0	편암	전기
22	청주 서촌동 산 45-1유적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	석재	7.4×6.0×0.8	편암	전기
23	청주 서촌동 산 45-1유적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	석재	14.4×6.1×1.2	편암	전기
24	진천 가산리유적	2호 주거지	미완성 석기	9.1×3.7×0.3-0.9	편마암	전기

박편석기는 보고서에 따라 박편, 미완성석기, 석재, 불명석기 등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크기는 한 변 10cm 미만, 두께 1cm 미만이다. 사용되는 석재는 석부 등의 대형 석기에 사용되는 사암, 유문암, 편암에서 석축, 반월형 석도 등 판상 형태의 석기에 사용되는 석재도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적별로 살펴보면 한 개소의 유적에서는 특정 석재만을 박편석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지시리유적의 경우는 세일, 예산 석곡리유적은 점판암, 연기 대평리D유적은 유문암과 이암, 청주 서촌동 산 45-1유적은 편암 등으로 동일 유적에서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석재만이 사용된다.

당진 기지시리유적은 15기의 주거지와 6기의 수혈에서 총 28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사용 석재로 구분하면 점판암 3점(10.7%), 세일 14점(50%),

사암 4점(14.3%), 운모편암 3점(10.7%), 규암 2점(7.1%), 응회암 1점(3.6%), 반암 1점(3.6%)이다. 점판암과 셰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석촉뿐 아니라 지석, 갈판, 환상석부 등 대형의 석기에도 점판암과 셰일이 사용되고 있다. 석재 입수의 용이성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쉽게 채집할 수 있는 석재로 다양한 기종의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에 발생한 박편을 도구로 사용했을 것이다. 연기 대평리D유적의 경우, 총 11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총 73점의 석기를 석재별로 구분하면, 혼펠스 5점(6.8%), 이암 16점(21.9%), 유문암 19점(26.0%), 사암 11점(15.1%), 응회암 7점(9.6%), 편암 7점(9.6%), 편마암 3점(4.1%), 기타 4점(5.5%), 안산암 1점, 규암 2점, 석영 1점, 활석 1점)이다. 이암과 유문암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석, 석촉 등 소형에서 대형까지의 다양한 기종에 사용되고 있다. 즉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재의 가공 과정에서 만들어진 박편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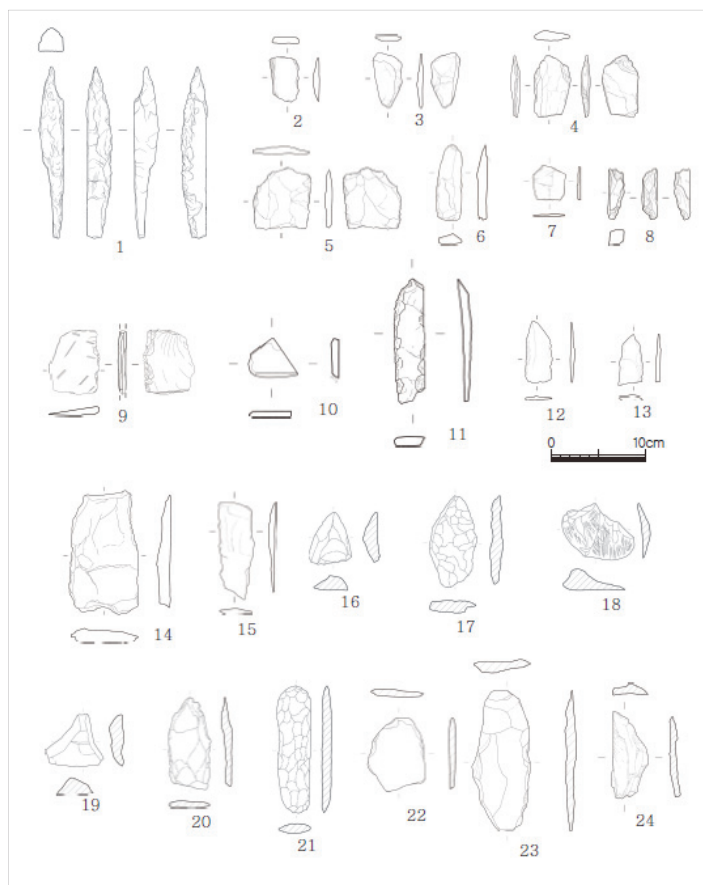


그림 4. 호서지역 청동기시대유적 출토 박편석기
(1:당진 수청 무수동굴유적, 2~5:당진 기지시리유적, 6·7:태안 시목리 437~24번지유적, 8·9:홍성 목현리유적, 10·11:보령 명천동유적, 12~14:예산 석곡리유적, 15:천안 성성동유적Ⅱ, 16~21:연기 대평리D유적, 22·23:청주 서촌동 산 45-1유적, 24:진천 가산리유적)

이상을 살펴보면 청동기시대 타제석부와 박편석기의 경우, 석재 사용에 있어 신석기시대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청동기시대 타제석부의 경

우, 마제석부와 동일한 석재를 사용하고 마제석부와 비슷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박편석기 역시 유적에 따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석재로, 당시 유적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던 기종, 예를 들어 석부 또는 석도 등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박편을 편의에 따라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청동기시대 석기 제작 과정에 있어 타제석기와 마제석기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타제석기와 마제석기의 제작 체계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마제석기는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확인되고, 청동기시대까지 타제 석기의 제작 기법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듯 마제와 타제라는 석기 제작 기법은 선사시대를 관통해서 존재했을 것이지만, 신석기시대에는 타제 기법이 주를 이루고 청동기시대에는 마제 기법으로 제작된 석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마제와 타제 기법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해도 각 시대에 따라 중심을 이루는 제작 기법이 있었다. 신석기시대의 경우, 구석기시대부터 이어져 온 타제 기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마제석기는 기종에 따라 서로 상이한 이유로 제작·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석축의 경우는 주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석재의 여부에 따라, 예를 들어 흑요석 등을 입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천매암, 점판암, 세일 등 판상으로 쪼개지기 쉬운 석재를 사용하는데, 타제로 제작할 경우 단단한 날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마제석축을 제작하게 된다. 타제석부는 사암, 화강암, 편암 등의 재료를 사용해 제작하지만, 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날이 필요한 목재 가공구 등의 소형 석부는 유문암 등을 사용해 마제로 제작한다. 신석기시대의 타제석부와 마제석부는 크기도 다르며 사용 석재도 다르기에 석재 획득 단계부터 별도의 석기 제작 체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는 이와 다르다. 마제석기가 중심을 이루며 타제석부, 타제인

기 등 극히 일부의 석기만이 타제로 제작되어 사용된다. 이 중 정연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타제석부는 전기에만 국한되고 출토되는 유적 역시 극히 한정적이고 수량 역시 매우 적다. 이렇듯 당시 석기 기종 구성에서 매우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타제석기 제작을 위한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동기시대의 타제석부는 마제석부와 크기도 유사하며 사용 석재 역시 동일 유적에서는 동일 석재를 사용한다. 이것은 타제석부의 제작이 마제석부의 제작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타제인기 등의 박편석기 역시 화강암, 사암, 편암 등 석부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석재뿐 아니라 세일, 점판암 등도 사용된다. 이 역시 당시 석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박편을 일회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신석기시대 마제석부가 별도의 제작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그 이전까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판상 석재를 사용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중부 지방의 타제석기의 석재가 세일, 편마암, 사암 등³¹⁾ 흔히 마제석기에 사용되는 석재라는 것은 소형 박편석기의 경우 판상 소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박편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별도의 타제석기 제작 체계가 없어지고 마제석기 제작 과정에서 타제석기가 제작되는 것은 그만큼 타제석기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타제석부의 경우, 목제 굴지구로 대체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을 것이고, 타제인기 역시 활발한 마제 석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박편을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별도의 타제 석기 제작 체계가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석기 제작의 마제기법과 타제기법은 구석기시대 후기에서 청동기시대까지 이어지기는 했지만, 각 시대에 따라 중심을 이루는 제작 기법은 서로 달랐으며, 또한 마제석기 또는 타제석기의 사용 빈도 등에 따라서 석재 획득

31) 박준범, 앞의 논문, 2008, 48쪽.

단계부터 구분되는 별도의 석기 제작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마제석기 제작 체계 속에 타제석기 제작이 이루어지는 등, 석기 제작 체계는 각 시대별로 다른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호서지역만을 다루었지만, 이러한 제작 체계의 차이는 시대뿐 아니라 지역, 유적에 따라서도 상이했을 것이다.

Ⅵ. 맺음말

흔히 구석기시대는 타제석기, 신석기시대는 타제석기와 마제석기, 청동기시대는 마제석기가 제작·사용되었다고 이해되지만 최근의 연구와 발굴 성과 등은 구석기시대부터 마제석기가 출현하고 청동기시대에도 타제석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듯 석기제작의 타제기법과 마제기법은 선사시대를 관통하여 존재했지만 모든 시대에서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신석기시대의 경우 타제석기와 마제석기가 병용되었다고는 하지만 마제석기는 목재 가공용의 석부, 석촉 등 일부 기종에 한정되어 나타나며, 그 역시 석재의 입수 여부 그리고 주거지 축조를 위한 목재의 수요 증가 등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시작된다. 그리고 기존 타제석기와는 다른 석재를 사용하면서 석재 획득부터 서로 다른 제작 체계 속에서 마제석기가 제작된다. 그러나 청동기시대가 되면 타제석기는 타제석부와 타제인기 등 극히 한정된 기종에서만 사용되며, 석재 역시 일반적인 마제석기의 석재를 그대로 사용한다. 즉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마제석기 제작 체계 속에서 타제석기가 제작·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석기제작에 있어 타제기법과 마제기법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타제석기와 마제석기를 특정시대의 표지적 특징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³²⁾ 그럼에도 타제석기와 마제석기가 항상 별개의 또는 하나의 제작 체계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에는 특정 석재의 입수 여부, 특정

기종 석기의 사용 빈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을 것이며, 시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지역 또는 유적에 따라서도 다양했을 것이다. 향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32) 성춘택, 앞의 책, 2017, 25쪽.

참고문헌

- 가정고고학연구소, 『당진 수청 무수동골유적』, 2020.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예산 석곡리유적』, 2020.
- 공주대학교 박물관, 『학암리유적』, 2002.
- 공주대학교 박물관, 『계룡 용동리유적』, 2011.
- 구자진, 「신석기시대의 수렵구」, 『신석기시대 석기론』, 2016, 184-219쪽.
- 국립청주박물관, 『청원 쌍청리 주거지』, 1993.
- 김수영, 「청동기시대 타제인기의 속성과 기능 연구 -조동리유적 출토 타제인기를 중심으로-」, 『중앙문화재연구』 제26호, 2018, 1-26쪽.
- 김영준, 「신석기시대 펜돌칼과 생업활동 -암사동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 43, 2002, 35-56쪽.
- 김은영·장용준, 「한반도 신석기시대 흑요석제 석기의 출토양상과 의미」, 『한국고고학보』 2022권 2호, 2022, 215-247쪽.
- 김지원,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보습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누리고고학연구소, 『청주 서촌동 산45-1유적』, 2017.
- 대한문화재연구원, 『보령 명천동유적』, 2018.
- 박근태, 「제주도 신석기시대 석기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1, 2011, 43-83쪽.
- 박성탄, 「청동기시대 석기의 타격흔 관찰 및 기능 검토에 대한 접근」, 『야외고고학』 21, 2014, 5-29쪽.
- 박준범, 「신석기시대 서울 경기지역 출토 간석기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5, 2008, 39-65쪽.
- 백두문화재연구원, 『홍성 목현리유적』, 2019.
- 소상영,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시대 생계·주거 체계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소상영, 「신석기시대의 문화」, 『한국고고학의 이해』, 2023, 37-62쪽.
- 성춘택, 『석기 고고학』,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 세종문화재연구원, 『태안 시목리 437-24유적』, 2017.
- 손준호, 「청동기시대 석기 분류」, 『역사학연구』 74, 2019, 1-28쪽.

- 안재호, 「한국 농경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43, 2010 41-66쪽.
- 유지인,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지역 취락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윤정국, 「신석기시대 굴지구의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7, 2009, 29-62쪽.
- 윤정국, 「남부내륙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의 변천과 양상」, 『한국신석기연구』 22, 2011, 57-92쪽.
- 윤정국, 「한국 신석기시대 석기제작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윤정국, 「한국 신석기시대 조기의 석기 제작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33, 2017, 33-56쪽.
- 윤지연, 「사용흔 분석을 통한 석부의 기능 연구」, 『한국고고학보』 63, 2007, 4-33쪽.
- 이기성, 「무문토기시대 타제석기 시론」, 『호남고고학보』 49, 2015, 69-95쪽.
- 이기성, 「신석기시대의 기후 변동과 석기 조성의 변화」, 『한국문화연구』 38, 2020, 7-41쪽.
- 이선미, 「소위 '부리형석기'의 용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준정, 「패총 유적의 기능에 대한 고찰-생계 주거 체계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한국고고학보』 46, 2002, 53-80쪽.
- 임상택, 「한국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장용준, 「구석기시대의 문화」, 『한국고고학 이해』, 진인진, 2023, 11-36쪽.
- 최종혁, 「한반도 남부지방 농경에 대한 연구 - 석기 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 12, 2005, 69-86쪽.
- 최종휴,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석촉의 형식 분포와 변천」, 『한국신석기연구』 39, 2020, 33-70쪽.
- 충북대학교박물관, 『중평 석곡리유적』, 2011.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홍성 장척리 폐기물처리시설부지문화유적 시굴조사」, 『홍성 장하유적』, 2010.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아산 용두리 부리기 유적』, 2014.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천안 성성동유적Ⅱ』, 2018.
- 충청문화재연구원,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Ⅰ)』, 2008.
- 충청문화재연구원, 『당진 기지시리유적』, 2012.
- 하인수, 「영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 -편년과 생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하인수·장은혜, 「신석기시대의 가공구」, 『신석기시대 석기론』, 진인진, 2016, 104-149쪽.
-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 강의』, 사회평론아카데미, 2012.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연기 대평리유적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3-1-D지점)』, 2017.
-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옥천 대천리 신석기유적』, 2003.
- 한서대학교박물관, 『대죽리유적』, 2001.
- 홍주희,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공방에서의 석기 생산방식 검토」, 『한국청동기학보』 20, 2017, 4-30쪽.
- 황창한, 「제4장 석기의 제작」,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서경문화사, 2014, 83-103쪽.

Abstract

A STUDY ON THE CHIPPED STONE TOOLS MAKING SYSTEM
OF BRONZE AGE

YI KISUNG (YI, KI SUNG)

Although it is commonly understood that chipped stone tools were produced in the Paleolithic Age, chipped stone tools and polished stone tools in the Neolithic Age, and polished stone tools in the Bronze Age, recent studies and excavation results tell that polished stone tools appeared from the Paleolithic Age and chipped stone tools were used in the Bronze Age too. As such, the chipping technique and polishing technique to produce stone tools existed throughout prehistoric times, but they did not have the same importance in all tim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Neolithic Age, although it is said that chipped stone tools and polished stone tools were used together, polished stone tools appeared only in some types of stone tools such as stone axes and stone tips for wood processing, and they appeared depending on different factors such as availability of stone materials and increased demand for wood for building dwellings. In addition, as stones different from those for the production of chipped stone tools were used, polished stone tools were produced in a production system different from that for chipped stone tools from the acquisition of stone materials. However, in the Bronze Age, chipped stone tools were used only in extremely limited types, such as chipped stone axes and chipped

stone blades, and the stone materials for general polished stone tools were used as they were for chipped stone tools. That is, it can be said that, unlike the Neolithic Age, chipped stone tools were produced and used in the polished stone tool production system. As such, the production of chipped stone tools and polished stone tools in separate production systems or one production system must have been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availability of certain stone materials and the frequency of use of certain types of stone tools, and should have varied not only according to times but also according to the region or ruins.

Key Words : Archaeology, chipped stone tools, polished stone tools, Neolithic Age, Bronze Age

